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현군수 對 관료·경찰 출신 '3강'

고흥군수

고흥군수 선거는 박병중 현 고흥군수와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경쟁 속에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준비해온 김학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자 구도를 만든 형국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경준 후보가 이변을 노리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 군수의 3선 성공 여부다. 안정감이나 3선 피로감이나를 놓고 지역주민 사이에 여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영 후보는 "과거에도 3선의 부정 여론이 있어 공천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도 3선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전쟁 중에는 정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소지역주의도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고흥읍·녹동읍 등 남부권에서 국회의원과 군수 등을 주로 배출하면서 과역·동강 등 북부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표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 후보는 북부, 박·김 후보는 남부 출신이다. 그러나 인구 비율이 북부가 남부의 3분의 1 수준이고 소지역주의도 거의 퇴색했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공약으로 ▲군수 월급 반값 ▲65세 이상 어르신 및 초·중·고생 군내버스 무료 ▲농어촌 휴먼기 난방용 면세유 공급 ▲녹동항과 나로항에 쾌속 카레라이프 취항 등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재선 동안 ▲군비 부채 0원 ▲지난해 재정균형 실적 전국 최우수군 ▲지난해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기관 전

■ 고흥군수 후보

정당 이름	새누리당 김경준(56)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중(60)	무소속 김학영(61)	무소속 송귀근(57)
경력	전 나라(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전남지부장	·군수	·정치인 ·전 고흥경찰서장	·정치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요 공약	·군수 월급 반값 ·65세 이상 어르신 및 초·중·고생 군내버스 무료	·유자·석류·참다래 등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 등 ·해조류 이양기 사업 등 어업 생산기반 확충	·군민 소리단·군정 평가단 구성 ·민선 6기 인사 취임 후 6개월 후 실시	·청정 로컬푸드 군 직접 관리 ·팔영산~거금도 청정 치유벨트 조성

안정이나 물갈이나... 3선 여부 여론 엇갈려

소지역주의도 변수... 박탈감 큰 북부 결집 주목

남 1위 ▲공모사업 7년 연속 100억원 이상 달성 등을 공적으로 꼽고 있다.

박 후보는 "큰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 중이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을 주요지점에 CCTV 설치 ▲유자·석류·참다래 등 읍면별 특화작물 육성 ▲해조류 이양기 사업 등 어업 생산기반 확충 ▲과학로켓센터 등 우주항공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1979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장성군 부군수, 전남도 경제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및 행정부시장 등 33년 동안 중앙·지방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노렸지만 "공천 과정에서 구 민주계 사람들이 원칙과 규정을 무시했고 기록권을 지키려는

구태만이 횡행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무소속 출마했다.

그는 ▲청정 로컬푸드 군 직접 관리 ▲팔영산~거금도 청정 치유벨트 조성 ▲고흥 사랑 상품권 발행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학영 후보는 지난 2010년 고흥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바 있어 그에게는 이번 대결이 복수전이 다.

김 후보는 "군수의 주인은 군민인데 과거에는 국회의원이었다"며 무소속 고직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공약은 ▲군민 소리단·군정 평가단 구성 ▲권역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고흥시장 전면 복개 ▲민선 6기 인사 취임 후 6개월 후 실시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현군수 '3선 불가 부메랑' 피할까

보성군수

보성군수 선거의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은 정중해 현 보성군수의 3선 연임 성공 여부다.

하승환 전 군수의 3선 도전 때 '3선 불가론'으로 당선됐던 정 군수가 출마를 선언, 이젠 자신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이용부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정 후보는 일단 하승환 전 군수와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승리해 3선 도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정 후보는 지난 8년간의 군정 성과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보성을 예술회관, 회전 해변도로 정비, 응치 제암산 휴양림 조성, 꼬막 웰빙센터 조성, 녹차생태 체험단지 조성 등의 기반사업이 이미 끝났거나 올해 끝나는 등 그동안 80%가 완료됐고 이제 한해만 넘기면 대부분 끝난다"며 "이제 보성의 소득증대를 위해 준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취임 초 500억원이었던 농림어업 예산 1000억원 초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생산성대상 으뜸행정상 수상 등을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녹차생태공원 조성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후보는 "앞으로 4년 동안 향후 보성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대 기업 (공정) 유치 ▲인구 5만명 회복 ▲관광수익 1000억원 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결정돌들은 3선에 대한 여론 추이. 그는

■ 보성군수 후보

정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정중해(67)	무소속 이용부(61)
경력	·군수	·남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
주요 공약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대 기업 (공정) 유치 ·인구 5만명 회복 ·관광수익 1000억원 달성	·농업예산 45%이상 확대 ·여자만 르네상스시대 창조 ·군내버스 무료 요금제 및 택시 준공영제 실시

정중해 새정치 경선 승리 3선 연임 교두보 확보

이용부 前서울시의회 의장 무소속 도전 '2파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금도 복내면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내려왔다고 한다. 객지에서 성공해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고향에 뭔가 남겨야겠다는 생각에서 고향의 역사문화유적을 재조명한 책 '고향에 뜨는 말'이란 책을 냈는데 이를 위해 초경량 비행기(U.L.M)를 타고 보성을 4번이나 돌아보기도 구석구석을 살펴봤다"며 "그러던 중 흔적(유적)은 있는데 관리도, 스토리텔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보성군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을 준비해왔으나 "민심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부당함과 중앙당이 제시한 심사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후보자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탈당을 결심했다.

특히 이 후보는 '3선 불가론'과 관련, "지난 2006년 민선 4기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해 상대 후보를 겨냥, '3선은 행정 독재'라고 맹공을 했던 사람이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농업예산 45% 이상 확대 ▲태백산맥 문화벨트 구축으로 여자만 르네상스시대 창조 ▲열선루 등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 복원 ▲회전~조성 간 해안도로 '연인의 숲, 연인의 길' 조성 ▲군내버스 무료 요금제 및 택시 준공영제 실시 ▲주암담 주변 치유센터 및 트레킹 코스 조성 등을 내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1선거구 송형곤·송영국 대결... 2선거구 박금래 단독 출마

도의원

두 곳의 도의원 선거구에서는 3명이 출전했다.

제1선거구(고흥읍·정암·영남·과역·남양·동강·대서·두원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형곤 현 도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데 맞서 팔영농협 비상임 이사인 송영국 고흥자치포럼 준비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16년동안 박

상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송 의원은 "지역에 못다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제 2선거구(도양읍·풍암·도덕·금산·도하·포두·봉래·동일면)의 경우 현역 도의원인 함재규 의원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고흥상임부위원장인 3선의 박금래 고흥군의회 의장이 나서 새정치

■ 고흥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송형곤 (50·민·전남도의원) 송영국 (52·무·팔영농협이사)
제2선거구	박금래 (64·민·전 고흥군의회 의장)

※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민주연합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단독 출마여서 도의회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1선거구 통진당에 새정치연합 도전... 2선거구 3자 대결

도의원

두 곳의 전남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의원직 사수에 나선 가운데 새롭게 도의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다.

제1선거구(보성읍·응치·득랑·회천·미력·노동면)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정민 도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영수 전 보성군의회 의

장이 나섰다. 제 2선거구(벌교읍·조성·겸백·문덕·율어·복내면)의 경우 임영규 도의회 부의장이 당초 염두에 뒀던 보성군수 선거를 포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도의원에 재선에 나섰다. 이에 맞서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혁봉 녹색당 전남도당 당원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이 나섰다. 또 벌교 농촌지도소장을 지낸 강규중 전 보성군의원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 보성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임영수 (61·민·전 보성군의회 의장) 이정민 (50·진·전남도의원)
제2선거구	임영규 (56·민·전남도의원) 최혁봉 (40·녹·농업인) 강규중 (67·무·전 보성군의원)

※ 민=새정치민주연합, 진=통합진보당, 녹=녹색당, 무=무소속.

던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왕철나라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간연애

출시에정

제품명: 간연애 식품유형: 다류역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왕철나라(주) 판매원: 왕철나라

전남 정읍군 정읍읍 해당리 651-3 고객센터: 061664-5788 부장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